

# 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 호봉제 전환

내년부터 행정 사무보조·청사시설 관리 업무 등 60명

직군별 기본급 책정...근속연수 따라 급여 인상 혜택도

장성군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 대상은 행정 사무보조, 청사시설 관리, CCTV 모니터링, 가로등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60명이다.

군은 12일 "내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종별로 분류해 각 직군별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호봉(1~31)을 적용해 근속연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이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는 1호봉을 승급하게 되며, 그동안 상근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받는다.

기본급 외에 수당 또한 혜택이 늘었다. 정액급식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통보조비도 신설해 6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처럼 시간의 수당과 더불어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씩

연 4회, 명절휴가비를 60%씩 2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공무원과의 급여 차별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5기 이후 인사 운영 원칙을 정해 승진 후보 우선순

위의 승진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개 채용, 관내 실업자 임용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화순군 잠정 뉴타운 지구 관리비 4억 지원 특혜 논란

군의회 "지원 근거 없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전남지역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시작 초기부터 뼈가거리고 있다. 하자 논란에다 관리비 시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화순군은 잠정 뉴타운 지구(잠정햇살마을) 관리비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군의회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햇살마을은 올해 관리비로 1억6천만원이 집행됐으며 내년 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으로 4억원을 편성했다.

군의회는 뉴타운 관리비 지원 근거가 없고 통상 일반 공동주택은 수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특혜라는 주장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200가구 중 150가구 임대형으로 군 소유인 만큼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

자는 또 "분양전환을 하게되면 관리비 논란은 해소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잠성삼서면 유령지구(삼서 드림빌)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삼서 드림빌은 관리비 논란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의 약속 불이행과 주택 하자 등으로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귀농인에 대한 사과 부지 분양 약속 이행과 이슬이 맺히는 현상, 단열 미흡,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사과단지 문제는 이미 법정에서 입주민과 조정을 거쳐 해결됐고 하자 보수도 완료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도농상생의 모델로 추진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장성을 비롯해 화순, 전북 고창 등 전국 5곳에 추진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줄이는 담양 인재양성 장학금

고 최두호씨 3억원 등 올해만 4억2000만원

93년 장학회 설립 이후 기금 63억여원 조성

담양군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장학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올 초 담양군 남면 가암리의 김중호씨를 시작으로 기탁된 올해 장학금은 지난 5월 고 최두호 장학금 명목으로 3억원이 전달되면서 현재까지 4억2000여 만원이 조성됐다.

지금까지 한 해 최고액이다. 지난 93년 8월 설립된 (재)담양 장학회의 장학금 보유액은 모두 63억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이자로만 1억6000여 만원을 받아 지역 인재 양성에 쓰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주)북부환경(대표 김기진) 임직원 일동이 324만원을, 담양 세븐일레븐 한덕희 대표와 문화재·명인 국제

교류회가 각각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주)북부환경은 지난 2009년부터 임직원 45여명이 모은 장학금을 돈을 매년 기탁하고 있다.

담양공고 앞과 월산면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중인 한씨는 100만원을 기탁하며 "후배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문화재·명인 국제교류회(대표 김성수)회원들도 담양의 랜드마크인 죽녹원 생태전시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 인재들을 위해 내놓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자연생태 우수' 장흥 상선약수 마을

장흥군 상선약수 마을이 환경부가 선정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상선약수 마을은 억불산 기슭에 위치,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 300년 이상 된 수심 그루의 고목과 총 3ha 이상의 대나무 숲이 주거지 뒤쪽에 우거져 있는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풍경으로 유명하다.

(장흥군 제공)

## 강진~마량 국도 23호선 도로 건설 '청신호'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 국비 85억 국회 예산 편성

강진~마량 국도 23호선 도로 건설 및 국도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교육기관인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 국비 85억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에 반영돼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가 12일 국회를 전격 방문, 황주홍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대책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결정에서 반영된 국비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사

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의 사활을 건 경쟁 탓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이날 군정 행사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를 찾아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소속 임태현·유영준·최재천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전북

# 6년 끌어온 '새만금 송전선로' 극적 타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2일 군산시 옥서면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 노선 예정지를 찾아 현장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권익위, 송전탑 높이·전자파 방해 여부 美軍측에 질의 대안노선 중재안 회신 결과 한진·주민 수용기로 합의

한국전력과 주민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간 터덕거렸던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군산 시청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권익위는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로 하고 계기 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 여부,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 등 3가지를 미군부대에 질의, 그 결과를 한진과 주민이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력

간강권이 크게 침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 2축도로)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한진과 군산시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미군 측에 세 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대책위는 한진이 대안노선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최저 50m·최대 75m)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안노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로 결실을 맺게 됐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던 '미군 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 높이'에 대해선 검토 불가 회신이 와도 주민들이 수용하기로 양보했다.

미군 측의 질의회신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일자리 7000개 만든다

민선 5기 핵심공약 점검

고창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5기 양질의 일자리 7000개 창출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강수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13년 성과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만1033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였던 7000명에 비해 4033명을 초과 달성했으며, 추후 고창일반산업단지외 북분자클러스터가 준공되면 민간 부

문 일자리 3800여개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산업구조도 개편되고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 종사자가 지난 2008년 62%에서 2013년 56%로 하락했으며 점진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4500명에 비해 올해 68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군수는 이날 "지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 친화적 산업, 식음료산업 등 고창에 적합한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자녀교육 이렇게 해보세요"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2013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담자로서의 부모역할'을 주제로 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면하는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단신

순창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

순창군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민족도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군·읍면 민원실과 인허가부서 방문 민원인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조사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평가한다. 조사는 민원처리의 편리성,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 16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달 3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순창=이희동기자 dhlee@

정읍 소통행정 실현 '여성 열린 토론회' 개최

정읍시가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12일 '2013 여성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주제강연과 소주제 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가 '일, 가정 양립의 현실과 여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곧이어 열린 소주제 토론회에서는 송운용 전북과학대 교수가 좌장이 돼 조선희 전북도 여성단체연합회장, 도유희 전북과학대 교수, 오경숙 정읍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의 토론을 이끌었다.

/정읍=박기성기자 parkks@

남원 공공하수처리장 구조물 일제점검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겨울철을 맞아 남원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구조물, 기계설비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소는 13일까지 동절기에 안정적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건축물 12개동, 총

인처리시설 등 구조물 9개소 등을 중점 점검한 뒤 노출 배관을 보온하고 수리하는 등 동절기 하수처리장 운영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노후된 각종 기계 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총사업비 60억원 규모로 소화조도 개량할 예정이다. /남원=백성진기자 bs8787@

전주시 예술상 8개 부문 수상자 선정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주시예술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4회 전주시 예술상 8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선대규(63), 음악 부문 이형우(48), 국악 부문 전대준(69), 무용 부문 한유선(40), 미술 분야 임동주(74), 사진 분야 김도영(66), 연극 분

야 정초왕(58), 건축 분야 이상엽(55)씨 등이다. 1990년 제1회 시상 시작한 이후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